

문명 교류와 융합의 역사, 실크로드에서 발견

실크로드 삼부작의 완성을 기다리며

글 김수영(한겨레출판 편집장)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본 방송사에서 10부작 넘게 만든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부럽 더군요. 우리도 3부작쯤에서 그칠 게 아니라 20부작쯤으로 제대로 만들면 대작이 나올 법도 한데. 그때는 내가 동행하고 싶군요.”

《실크로드 문명기행》을 출간하고 책이 나오기까지 애쓴 저자, 사진기자들, 취재기자, 편집자 등이 함께 모인 기념식 자리에서 정수일 선생은 다른 매체로 실크로드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고희를 넘긴 이 노학자를 추동하는 힘은 무엇일까? 실크로드에 그토록 애정을 기울이는 까닭은 무엇일까? 실크로드 역사에 우리가, 인류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가 담겨 있기 때문 이리라.

우리는 인류사, 세계사, 우리 역사를 배울 때 전쟁과 점령, 지배의 역사를 제일 먼저 접한다. 또는 우월의 역사를 배우기를 즐긴다. 그런데 실크로드에는 전쟁의 역사도 있지만 문명교류, 문명융합의 역사가 두드러진다. 그 동안 정선생이 펴낸 책, 즉 《고대문명 교류사》 《실크로드학》 《세계 속의 동과 서》 《한국 속의 세계》 등의 제목만으로도 ‘실크로드학 전문가’ ‘문명교류사가’ ‘문명교류사의 전도사’ 등 여러 가지 별명이 따라다니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장 속에서 직접 체험하고 고대문명 교류사의 비밀을 기록으로 남겼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히고 있듯 애초에 <한겨레>에서 ‘실크로드 재발견’이라는 기획에 뜻이 있었고 1년여의 장기연재 계획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실크로드 문명기행》은 그 결실의 하나이다.

총 53쪽지로 이루어진 책은 우리나라와 서역의 문명교류에 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둔황 막고굴의 지도에서 헤초 스님의 입적지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고,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시업 궁전 벽화에서 고구려 사신 그림과 만나고, 이란의 아스

피한 이맘 광장에 있는 석조 골대에서 격구의 단서를 찾고, 터키의 토프카프 궁전 박물관에서 청화백자를 보고 우리와의 교류 흔적을 짐작하기도 한다. 또한 페리시아 향기를 한반도에 전한 석류의 고향도 만나며, 우리 전통의상의 유형적 원류, 한혈마의 원산지, 알파벳의 산지 등 문명 교류 역사에 대한 색다른 교과서라고 해도 괜찮다.

“이제 오아시스로편을 마쳤으니 초원로편하고 해로편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자는 실크로드 3대 간선 중 나머지 둘도 답사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다. 얼마 전 만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후배에게 이런 뜻을 던지시 말했더니 “그거 참 멋지겠는데요. 제가 한번 배편을 알아볼까요?” 한다. 껄껄 웃었는데, 관심을 가져주니 고맙다.

흔히 유럽에서 아시아 문화 하면, 중국, 일본, 인도 정도가 다이다. 최근 한류다 뭐다 하면서 야단법석이지만 아직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는 매우 낮은 편이다. 유럽과 접촉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고 일제 강점, 전쟁 등을 치르며 문화를 알릴만한 시간도 짧았기 때문이겠지만 이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야 할 때에 이르렀다.

“가까운 일본은 오래 전부터 실크로드 경유지에 나라들에서 유적 발굴을 지원하고 박물관도 세워주고 했어요.”

그렇기에 일본 관련 유물들은 가는 박물관마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박물관 자리가 탐나서라기보다는 역사의 흔적을 너무 오랫동안 묻은 채 남겨 놓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자동차사업도 좋고, 건설업도 좋지만 기업들이 좀 더 멀리 내다보고 이런 일에 적극 지원하는 것도 장기투자의 방법일 수 있지 않을까.

노학자의 바람이 이루어져 초원로편, 해로편이 결실을 맺을 날을 기다려 본다.